

대학에서의 성문제 실태와 방향

권 혜 진 |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대학에도 개방적 성문화의 물결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해 온 유교적, 가부장적 성윤리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성의 개방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성문화가 대두하였다. 같은 기간 중에 진행된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달 역시 성문화의 변화를 일으킨 주요 동인이었다.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 매체에 성적 표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을 앞당겼고, 정서적 심리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향락 산업이 번창하고, 이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와 성병 문제, 혼전 임신과 미혼모, 임신 매매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 같은 변화의 물결 앞에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급격한 성문화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피임에 관한 지식의 확산과 수단의 획득이 용이해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인구 조절의 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가족 계획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피임에 관한 지식과 수단이 일반인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즉 생식 수단으로서의 성(reproductive

sex)에서 쾌락 추구적 성(recreational sex)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모하면서 여성들의 전통적 성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이 강조되면서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강요하고 남성의 성적 일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유교적 성윤리가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여기에 서구 사회의 자유로운 성풍조(free sex) 확산도 성문화의 변화에 한 몫을 했다. 1960~70년대 서구의 지식인 사회를 풍미했던 이른바 신좌파(New Left) 계열의 이론가들은 성과 사랑의 분리를 통해 성에 대한 현대 문명의 과잉 억압 상태의 해소를 주장했다. Herbert Marcuse는 그의 저서 『일차원적 인간(One Dimensional Man)』과 『에로스와 문명(Eros and Civilization)』 등에서 성은 얼마든지 즉물화가 가능한 생리적 반응에 불과하고, 사랑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정서적 반응으로 양자가 상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시한 나머지 현대 서구 문명이 인간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과잉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cuse 등의 이론이 실제로 1960~70년대 미국 대학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졌던

성폭조(free sex)의 확산에 기여했고, 한국인의 성윤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세기판 주홍 글씨(Scarlet Letter)라는 불치병 AIDS의 확산으로 서구 사회의 성적 방종 풍조에 제동이 걸렸고, 최근에는 오히려 보수적인 성윤리로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유사한 변화를 아직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 사회의 성문화도 위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함께 겪었다. 대학 사회라고 해서 고립된 섬이 아니며, 결국 전체 사회의 축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의 성문화가 대체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답습해 왔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주구성원인 대학생들이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 단계에 있어서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또한 자신들이 가진 성지식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새로운 성담론으로 대두

최근 발생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는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1990년대 초 당시 오클라호마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아 니타·힐이 부시 행정부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후보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자신이 보좌관으로 일하던 때 그가 보여 준 외설적인 언동을 문제삼아 대법원 판사 인준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미국의 조야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법조인은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세계 여성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의 부친서 성고문 사건에 이

어,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가 대학 사회에서 중요한 성담론으로 등장하였다. 성폭력의 범위를 강간(rape)에만 국한시키던 종래와는 달리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노출증적 행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성적 행위로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심지어 대학 사회에서조차 성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 여자 대학의 사이트에 공개된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절반 가량이 강의 도중에 교수들로부터 성차별적인 말 등 언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여대 등 시내 8개 대학 총학생회와 여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 회의'가 최근 여대생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연대 회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대생의 46.5%가 강의 도중에 교수들로부터 '여자는 시집만 가면 된다.', '여자는 자고로 순종이 미덕이다.' 등 의 성차별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여대생들의 반응은 '짜증 나지만 참는다.'(40.2%)가 가장 많았고, '교수님의 말에 대해 학우들과 얘기한다.'(36.4%)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15.9%)는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여학생 40.7%가 술자리에 늦게 남아 있거나 조금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너 여자 맞아. 여자가 그게 뭐야.' 등의 성차별적인 말을 남학생들로부터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

에 50.7%가 '짧은 치마나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고 가다 남자들이 아래 위로 쳐다보는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남자들이 밀리는 척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43.3%), '성기를 보이는 등의 성노출증적인 행위를 본 적이 있다.'(24.8%), '직접적으로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14.9%)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여대생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다.'(70%)와 '무시하려 애쓴다.'(11.8%)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인 성추행을 남학생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지내던 선배가 MT 등의 행사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는 동안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1.2%)거나 '술자리에서 남자 학우가 갑자기 키스를 하며 애무를 한 적이 있다.'(5.6%) 등의 응답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여성 특위)가 전국 3백 50여 개 대학에 '성희롱 예방 관련 학칙' 제정을 요구해, 대학가 성희롱 예방 학칙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성 특위는 이에 대해 "최근 교수, 학생간의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등, 대학 내 성희롱 예방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학칙이 제정되면 이제껏 성희롱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거의 제외됐던 학내 성희롱 문제도 학교 자율적으로 다루게 돼 젊은 세대의 성희롱 인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회 지도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집중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백명자 부장은 이에 대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자행되는 성폭

력은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말하며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온라인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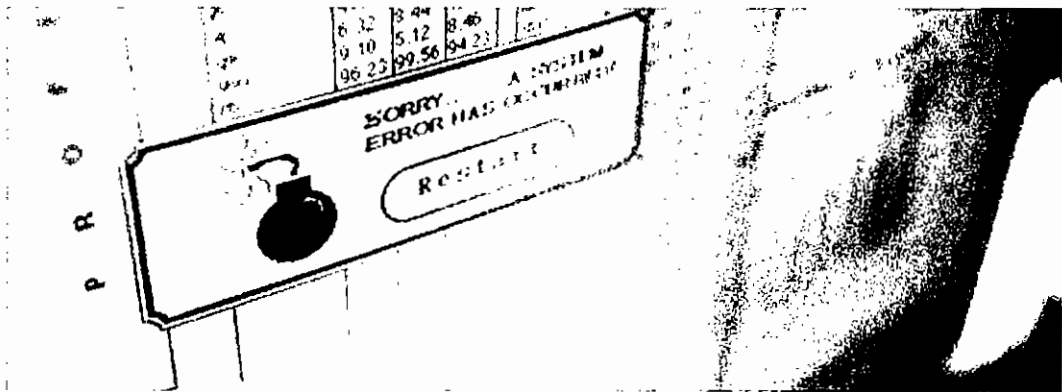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성폭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우누리 웹진(인터넷 잡지)에서 실시한 온라인 성폭력 설문 결과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이 조사에는 모두 1,368명이 응답했고, 그 중 남성이 891명, 여성이 477명이었다. 우선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절대다수가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8%, 여성의 경우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경우 6%는 직접 가한 적이 있고,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무려 56%가 직접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성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80% 이상이 제재에 동의했고, 그 중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성의 경우 51%, 남성도 40%나 되었다.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성폭력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익명성이다. 온라인 성폭력을 저질러도 통신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과는 달리 아이디만 바꾸면 그만이고, 아이디를 대여 받거나 임시 아이디를 쓸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 결과 온라인, 특히 PC 통신 공간 내에서 수많은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여학생들의 항변이 온라인



성폭력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정말이지 여성은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라고 비유되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팅을 맘 놓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 사례를 접해서요. 그리고 신상 기록란에는 전혀 아무 것도 쓰지 않았고 또 아이디조차 중성적인 것으로 했지요. 그러는 게 좋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서요. 하지만 이름이 여자처럼 느껴져서일까요 그래도 쪽지 메일 같은 건 오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깐 다시 통신을 시작한다는 게 꺼려졌어요. 요즘 ‘가상 공간 내의 성’이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직·간접적인 성폭력으로 인해서 아예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탈해 버린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정말인 것 같아요. 어디 겁나서 하겠어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여성은 인간이 아닌 어떤 대상물-성적 노리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이디나 이름이 여성 같다면 아무 거리낌없이 보내지고 있는 성적 메시지들. 그것에 놀라, 기본

나빠져 그냥 통신을 나가 버리게 되는 우리 여성들에게 성폭력 없는 세상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자기 재미만을 위해 막 보내지고 있는 성폭력 메시지들에 이제는 놀리지 말고 성폭력은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앞의 글에서 나온 대처 방안들도 써 보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공유하면서 성폭력은 절대 어느 속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한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보여 줘시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저 여성이 인간일 수 없는 현실에 우리 모두 분노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봅시다.(우리 여러 방법들을 개발해 보고 공유해 봅시다!!!!!!)”

온라인 성폭력을 규제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여대생이 국내 PC 통신 대화방에서 남성 이용자로부터 심한 성적 모욕을 당하자 곧 학생 자치 기구인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여성위원회는 여성 단체와 함께 이를 통신 서비스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가해 남자는 통신 이용권을 박탈당했다. 이어 18개 대학의 여학생 모임과 여성 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성폭력을 방지하

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및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공개 게시판 등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추진 중이며, 모토신의 토론장에 온라인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토론방을 개설하여 여론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에 있어서 성의 개방화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등 성개방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의 성문화가 유교적 성윤리의 붕괴 이후 다양한 성윤리, 성의식이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성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한 제언

이 과정에서 성폭력 등 개방적 성문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타지의 대학에 다니면서 기숙사, 자취, 하숙 등의 형태로 부모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성문제에 의해 고통을 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성의식이 상당히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모대학 신문사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의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혼전 성 관계에 대해 38.4%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다."고 답했고, 25.2%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져도 좋다.",

3.0%는 "조건 없이 가져도 된다."고 답했다. 반면 "절대로 안 된다."는 24%에 불과해 응답자 4명 중 3명은 혼전 성관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해 절반이 넘는 53.6%가 "문제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14.6%는 학내에서 성희롱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캠퍼스도 성희롱, 성폭력의 안전 지대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관련해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성병, 성폭력, 임신, 임신 중절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식 제공과 더불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해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성에 대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성개방 풍조의 여파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의 문제 또한 이들의 평균 연령이 대학 재학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제공해 혼전 임신, 임신 중절, 성폭력 기타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세계 보건 기구의 한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성문제로, 첫째 성경험 연령의 저하, 둘째 성병의 증가, 셋째 원하지 않는 임신의 증가, 넷째 인공 임신 중절의 증가, 다섯째 출산의 증가, 여섯째 피임 수단의 사용 기피 등을 들고 있다.

미국 청소년협회에서는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의 경우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의 경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도 세계 보건 기구 보고서가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27.7%, 여학생의 14.7%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고, 대학생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약 53%, 여학생의 2.5%가 성경험을 하였고,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은 7.1%, 유산을 경험한 여학생은 7.7%, 강간을 경험한 여학생은 0.6%, 동성애를 경험한 남학생은 7.7%, 여학생은 3.1%, 성병을 앓은 적이 있는 남학생은 13.0%, 매음굴 출입을 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약 35%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위 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이 60.9%, 성경험 31.2%, 피임 18.5%, 성병 3.3%, 강간 7.2%, 임신 4.0%, 유산 2.9%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학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을 성문제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학교의 성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비효과적이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성교육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고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데다가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이 효과적인 성교육 실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중등학교의 성교육이 이렇게 미흡하다면 대학교육과정에서라도 성교육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등학교 이상에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

태도에 대한 점수가 성교육을 함으로 향상되었고, 고등학생들의 경우도 성지식이 높아질수록 성태도의 점수도 높아져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의대생, 간호대생, 심리학과 대학원생,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 성교육에 의하여 성지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교육의 발전적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성교육, 구체적이고 솔직한 내용의 제시, 조기 성교육 실시, 부모들에 대한 성교육 실시, 성교육에 대한 개방적 환경 조성, 발달 수준에 따른 단계적 내용의 교육, 성교육에 청소년들의 관점 반영, 남녀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실시하는 성교육 및 상담 등을 들 수 있다.

성에 관한 문제는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명 개념을 재인식하고 남녀 차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교육을 통해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태도를 습득케 하여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이다. **■**

권혜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 간호사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정신 건강 간호학』이 있으며, 논문으로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분노 현상에 관한 연구』,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